

케익하우스 몽마 본점

# 3가지 원칙으로 일궈낸 비상(飛上)

글 · 허윤정 기자 | 사진 · 한수정



신림동에 위치해있던 기존의 케익하우스 몽마 본점이 시흥동에 새로 등지를 틀고 제 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지역 제과점에서 시작한 케익하우스 몽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와 맞서 당당히 성공을 이뤄낸 주인공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체인점을 갖고 있다.

케익하우스 몽마는 본점 이전과 함께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통일적인 가맹점 관리 방침을 세운 상태다. 마동우 부장은 “앞으로 체계적인 기술관리, 경영관리, 인력관리를 기본 축으로 전국의 체인점에 매출 증대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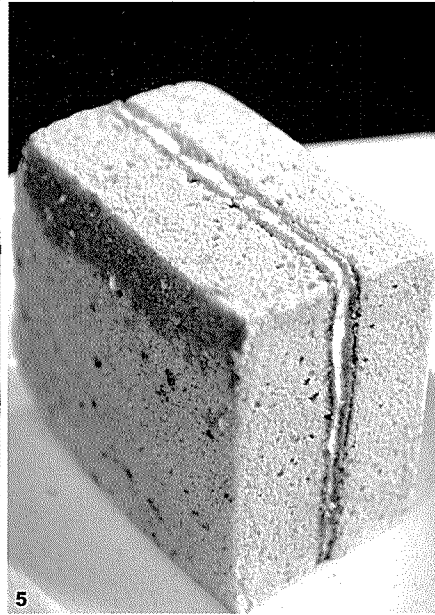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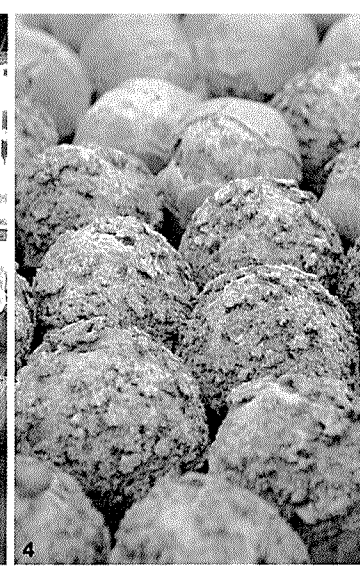
케익하우스 몽마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다름아닌 기술관리. 케익하우스 몽마는 신제품을 만들 때 ‘3분의 1’ 원칙을 염두에 둔다. 새로운 빵과 케이크를 만들면 우선 3분의 1만 판매량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마동우 부장은 “처음부터 판매만을 목적으로 만들면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나머지 3분의 1은 고객들이 시식할 수 있도록 매장에 진열하고 마지막 3분의 1은 ‘버릴 각오’를 한다고. 이렇듯 여유로운 분위기 덕분에 케익하우스 몽마는 매달 신제품을 대거 출시한다.

치열하게 고민하며 개발한 만큼 고객들에게 외면당하는 제품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신제품은 시식을 통해 고객들에게 검증받은 뒤 바로 판매되고 곧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는다. 홍국 빵, 상황버섯 바게트, 클로렐라 빵 등이 이렇게 해서 태어난 효자 아이템. 인기 신상품의 레시피는 한달에 한번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전국의 케익하우스 몽마로 전달된다.

제품 이외에 고객 마케팅을 실천하는 경영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쓴다. 당일생산·당일판매를 고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재고상품은 무조건 고객들에게 ‘덤’으로 제공하는 독특한 전략을 쓴다. 정기적인 점주 교육을 실시해 이러한 매출 증대 아이디어를 빠짐없이 전달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눈도장 찍히려면 ‘덤’이 빠질 수 없죠. 주부 고객층이 많기 때문에 이점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마동우 부장은 주요 고객층의 특성을 파악한 이곳의 마케팅



팅을 소개한다. 이러한 공짜 마케팅을 통해 케익하우스 몽마는 신선한 제품만을 판매하고 인심까지 후하다는 칭찬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

일반적으로 제과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인력관리도 이곳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직원과 점주 각각에 어울리는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걸친 케익하우스 몽마의 공장과 매장 직원들은 입사 전 본사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 입사 후에는 본사의 교육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매장을 방문해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점주들에게는 최신 제과 트렌드에 대한 정보와 함께 바람직한 인력관리를 위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곳보다 이직률이 적고 점주와 직원들 사이의 화합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기술 개발, 고객의 입장에 선 매장 경영, 효율적인 직원 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케익하우스 몽마 본점. 뿌리가 튼튼한 나무에서 많은 가지가 뻗어가듯 본점의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탄한 자립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할 것이다. ㉞

1. 케익하우스 몽마 본점의 외관. 기존의 옐로우색에서 차분한 느낌을 주는 초콜릿색으로 메인 컬러를 바꿨다. 2. 중앙 매대에 자리한 '시식코너'에서 매일 새로운 제품이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3. 홍국, 상형버섯 등을 사용한 빵을 진열한 '웰빙코너'. 케익하우스 몽마의 인기제품 집합소라 할 수 있다. 4. 콜로렐라 비스킷 칠팩빵. 속이 빈 기존 개찰빵의 단점을 보완해 빵 속에 참쌀떡을 넣어 만들었다. 5. 빵임 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카스텔라인 '빵임 머시멜로'는 건강과 맛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 6. 한끼 식사로 충분한 조리빵도 인기가 높다. 또띠아를 이용한 조리빵, 옥수수를 넣은 페이스트리, 핫도그 빵, 아치 페이스트리(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7. '웰빙코너'의 효자 상품 상형버섯 호밀 바게트와 홍국 빵(사진 왼쪽부터).

TEL : 02) 807-2250 · 위치 : 금천구 시흥동 법원단지 앞

